움직임과 소리의 대화: 작품 〈간 때문이야!〉를 중심으로

Conversation of movement and sound :Focused on 'Because of the Liver!'

이 보 람, 김 형 남*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Lee Bolam, Kim Hyoung-nam*
Sejong Univ, Korea, Sejong Univ, Korea*

요약

이 연구는 작품 〈간 때문이야!〉의 무용수를 움직이게 하는 청각적 요소와 무용수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탐색함으로써 '움직임과 소리의 대화'라는 안무의 접근 방식을 풀어내고자 하였다. 메트로놈, 기타와 같은 비신체적 청각요소와 무용수, 소리꾼의 신체에서 발생된 소리인 아니리, 판소리(소리), 숨소리 등은 욕망을 표현하는 적절한 움직임을 끌어내는데 충분한 자극이 되었다. 또한 움직임으로 인한 소리의 발생은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자극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거쳤다.

Ⅰ. 서론

무용이란, 인간의 신체를 도구로 하여 사상과 감정을 움직임으로 나타내고, 음악에 맞추어 리드미컬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무용에 있어 음악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요소이며, 무용예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1]. 그러나 현대의 공연예술에서 음악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음악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판소리와 춤의 만남은 융합된 공연예술이 난무한 현시점에서 그리 신선하지는 않다. 그러나 작품 〈간 때문이야!〉에서 사용된 '수궁가'의 일부분은 수궁가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청각적 자극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작품 〈간 때문이야!〉에서 무용수를 움직이게 하는 청각적 요소와 무용수의 움직임이 어떠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지를 탐색함으로써 현대 춤 안무방식에서 움직임과 소리의 의사소통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Ⅱ. 움직임과 소리의 인터렉션(Interaction)

1. 작품 〈간 때문이야!〉 개요

제목: 간 때문이야! (Because of the liver!)
단체명: 춤판야무
초연: 2016년 6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 12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 안무가 육성공연)
재연: 2016년 6월 26일 상명아트홀 2관 (2016 PADAF)
소요시간: 25분
안무: 금배섭
출연: 금배섭, 이보람, 배민우, 김명식, 김묘정
음악: 소리꾼-안이호, 기타리스트-윤현종
드라마트루기: 김상희
내용: 인간이 욕망으로 인해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 친구, 타인의 삶 까지 갉아 먹으며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망가져 사라짐을 표현한다.

2. 무용수를 움직이게 하는 청각적 요소

1) 메트로놈

메트로놈은 작품 내내 보이지 않는 규칙을 의미한다. 무용수 퇴장 후 스스로 멈춰 보이지 않는 규율과 욕망의 사라짐을 나타낸다. 무용수들은 발을 붙이고 무게 중심을 좌우로 옮겨 움직인다. 작품의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일정한 박자로 끊임없이 소리 내는 메트로놈은 무용수들이 각자의 리듬감으로 움직이다가도 똑같은 박자에 움직이도록 한다.

2) 아니리, 그리고 몸짓

수궁가의 아니리 중 '간 더운 김에 식지 않게 소금 찍어 올리거라'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무용수들은 맛있는 음식을 비유한 아니리를 듣고, 소리꾼의 몸짓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떠올린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향해 살금살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며 손으로 집어 입으로 가져간다. 움직임 속에 의미를 담아, 서로를 갉아 먹으려 한다.

*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6-0-00312)
knam414@hanmail.net

3) 판소리(소리)

수궁가의 절정 부분만을 엮었다. 무용수들은 먹고, 소화 시킨다.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큰 보폭으로 맴돌고, 무언가를 잡기 위해 빙글빙글 돌며 끌어당긴다. 또는 분노를 참지 못해 몸을 때리거나 잽싸게 낚아채기 위해 땅을 치기도 한다.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가 망가져가는 움직임은 격하게 들리는 판소리를 통해 더 격렬하게 움직인다. 이성을 잃고, 무언가에 홀린 듯 더 거칠게 움직인다.

4) 신체 그리고 입

무용수들은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를 때리며 소리를 구성한다. 소리의 높낮이와 강약에 맞추어 움직임과 형태를 만든다. 허벅지를 치기 위해 상체를 숙이거나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해 목을 길게 뺀다.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어깨를 올리고, 박수치는 박자에 맞춰 총총 이동한다. 그리고 입맛을 다시는 듯 쩝쩝 그리고 빨아먹는, 꿀꺽 등의 소리는 욕망이 보여 지는 움직임에 머물지 않도록 하였다.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간보고, 약을 올리고, 눈치 보는 탐색전은 소리를 내기 위한 표정과 안면근육의 사용으로 표현이 배가 된다.

5) 기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을 아름다움을 기타선율로 표현한다. 무용수들은 팔을 크게 돌리며 상체를 크게 쓰고, 다리를 길게 뻗어 백조와 같은 아름다운 움직임을 한다. 그러나 타인의 욕망으로 인해 벗겨진 자신의 허물(옷)을 끝까지 놓지 못해 끌고, 물고 다닌다. 무용수들은 입에 물고 있는 상태로 옷을 바닥에 치고, 던지고, 달린다. 기타선율 속에 갑작스럽게 들리는 채찍과 같은 어긋나는 음을 통해 무용수의 몸은 무너지지만 허물은 끝까지 놓지 못해 서로의 옷을 입에 물고 으르렁 거린다.

3. 무용수의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소리

1) 숨소리

원하는 것을 위한 몸부림 대신 잠시 쉬어 감을, 그렇지만 그 속에 욕망이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는 것을 격하게 쉬는 숨소리를 통해 나타낸다. 무용수들은 욕망을 위해 누군가에게 아부하거나 겸손해지듯 두 손을 맞잡고, 숙여진 몸의 호흡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보여 진다.

2) 팔꿈치

삶의 밑바닥까지 다다라 이성을 잃고 미쳐 버려, 주저앉아 투정부리듯, 인간의 욕구불만을 표현한다. 무용수들은 신체를 사용해 바닥을 치는 소리와 함께 격하게 Floor 움직임을 하고, 시위하듯 한 방향을 향해 엎드려 팔꿈치를 바닥에 친다. 메트로놈의 박자에 맞추어 움직임은 소리로 들린다.

3) 손가락, 손톱

무용수들은 바닥에 엎드리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손톱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기어간다. 곤충의 다리와 같은 손가락을 피해 도망가고 따라간다. 서로의 몸을 갉아먹어 마침내 옷은 벗겨진다. 곤충의 다리를 표현한 손가락은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로 인해 무용수들은 벌레가 되어 서로를 갉아먹는다.

4)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

초연 당시 중극장 난간 끝을 네 발로 기어가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 저승으로 떠나는 표현을 하였다. 재공연 당시 소극장으로 공간이 옮겨져 수정·보완 하였다. 무용수들은 주저앉아 바닥까지 가져갈 기세로 떨어지지 않는 손을 끌고 간다. 욕망이 사그라지지 않아 세상에서 품고 있던 물질, 명예 등을 온 몸을 사용해 가져가려 애를 쓰는 움직임을 통해 소리는 만들어진다. 욕망과 함께 저승길로 떠나는 표현을 위한 적절한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소리이다.

Ⅲ. 결론

작품 〈간 때문이야!〉는 무용수의 움직임과 소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청각적 요소를 탐색하여, 그것이 욕망과 연결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발전·변화시키게 되었다. 움직임과 청각적 자극의 만남은 즐거움을 의미하며 동작의 무한한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다[2].

무용수들에게 두 요소의 만남은 낯설었다. 움직임과 소리의 개별적인 구성 후 어우러짐을 시도하였으나 둘은 서로를 흡수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기간을 거치면서 무용수들과 안무자는 대화하고, 움직임과 소리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서로의 움직임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했으며, 개인의 색깔이 나타나는 각자의 소리와 움직임들로 작품을 채우게 되었다. 새로운 움직임을 위한 소리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소리를 위한 움직임이 탄생함으로써 움직임이 의미를 품게 되었다. 무용수로서 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상황과 질감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 주변 환경에 의지 하지 않고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 움직임 자체로 의미가 있게 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박영애 “무용요법에서의 음악사용”, 대한무용학회논문집, Vol. 70 No. 1, pp.147-158, 2012.
[2] 안혜원 “John Cage가 무용음악에 미친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Vol. 27 No. 2, pp.135-150, 2016.